

의류학 분야 대학교육내용의 산업 실무 활용에 관한 연구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분석을 중심으로-

주정아[†] · 유효선* · 김현아**

전주대학교 패션산업전공,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to Industrial Work

Jeongah Ju[†] · Hyoseon Ryu* · Hyunah Kim**

Dept. of Fashion Business, Jeonju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stitute for Knit Industry

접수일(2010년 11월 23일), 수정일(2011년 1월 4일), 게재확정일(2011년 1월 21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educational curricula in the field of Clothing and Textiles in order to develop appropriate educational methods and courses. We reviewed the curricula offered by 58 Clothing and Textiles Departments at four-year universities in Korea. We analyzed the educational content of each curriculum by dividing all of the courses offered into eight categories.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information posted on the universities' Internet websites, and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courses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Departments are composed of, 36.2% design, 20.4% production, and 14.5% textile categories.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a similar study conducted in 1999, emphases on the design, distribution, and marketing categories have increased, while the emphases on the production, apparel material, basic knowledge, and consumption science categories have decreased. Second, in the case of the apparel material category, basic knowledge of materials constituted 18.5%, the largest part of the category. The average number of units offered in the area of apparel materials by the 58 Departments was 17 units per year. The curricula were found to vary by regions of the country. Th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Chungcheong region offer more textile material courses, but the universities in the Capital region offer fewer textile material courses than other regions. Departments that are affiliated with universities that emphasize Art and Design have more courses on basic knowledge, dyeing and finishing, and fabric design than other universities.

Key words: Clothing and textiles, Apparel material, Curricula, Educational courses, Educational methods;
의류학, 의류소재, 교과목, 교육과정, 교육방법

I. 서 론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시대,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시대, 생활·문화 중심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joo111@naver.com

디자인 문화산업이 요구되는 감성시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 등으로 한국의 섬유·패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패션이 21세기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진정한 프로정신과 감각을 지니고 있는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제도 및 내용의 개선

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구양숙 외, 1999; 나수임 외, 2008; 이유리, 이미영, 2007). 현재 국내의 패션산업계는 유통개방과 더불어 제조업 중심 시스템에서 소비자 중심 시스템으로의 큰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기존의 디자이너 양성 중심의 교과과정에서 패션산업 각 분야마다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세분화·특성화가 필요하다고(구양숙 외, 1999) 지적되고 있다.

섬유·패션산업의 국가경쟁력은 의류학의 창의적 교육에 의한 인재 육성에 달려있다. 의류학은 가정의 관리능력 향상이나 가정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목적으로 하는 가정학의 한 부분으로 가정 내의 합리적인 의생활을 목표로 처음 시작된 이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산업화된 의류산업에서 의류 관련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산업화된 가정학의 각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류학과를 개설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이유리, 이미영, 2007).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인력 양성은 수적인 면에서는 충분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부단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류학 관련 특정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하여 세부 분야별 연구범위 및 연구현황을 다룬 연구(김정호, 1999; 정찬진 외, 1991) 및 의류학과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최선형, 1994), 그리고 생활과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생활과학의 의류학 분야에 관한 토론(남윤자, 1999)도 이루어졌다. 좀 더 세분화 하여 의류 관련 학과 교과과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되, 의복구성 설계를 중심으로(이해영, 이진희, 1991) 혹은 패션마케팅 및 복식사회심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김은애 외, 2004)와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패션마케팅 분야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차별화된 패션마케팅 연구에 대한 고찰을 위해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하고 있다.

의류/패션 관련 학과의 전공교과과정에 대한 현황 분석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90년대 후반의 학부제의 도입 이후 10년간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 내용 구성의 분석과 함께 산업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내용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파악하여 산업 실무 중심의 교과내용 개발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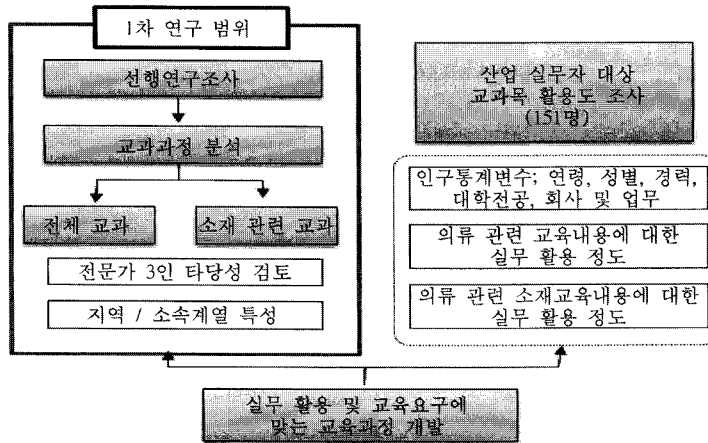
수집하고자 하였다. 도규희 외(1994)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의상디자인 교과과정이 실무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현 교육과정이 실무 디자이너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실무 디자인 작업에서 디자이너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소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고 답하여, 아이디어 발상의 어려움 및 기술·일반 분야에 대한 지식부족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의류제품생산 관련 대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학교교육에서 활성화 되어야 할 중요과목이 의복구성 분야에 이어, 피복 과학 분야가 두 번째로 중요한 과목으로 조사된 바 있다(김효은, 1999).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의류학 교과목 관련 선행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류소재 분야의 교과목의 편성과 교육내용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류산업 종사자들의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를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산업 현장 활용 및 교육내용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의류 관련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소재 관련 교육내용 분석하여 현재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이후 연구된 패션전문가들의 산업 실무에서 필요한 교육내용 활용도 및 재교육 요구조사와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산업 실무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전체 연구의 범위는 <그림 1>과 같이 교육과정 분석과 산업 실무 종사자들의 교육내용 활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요구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연구내용 중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교육요구 조사내용에 앞서 현재 의류 관련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특징을 분석하고 소재 관련 교과목 내용과 편성의 분포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실무 요구에 맞는 소재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교육내용의 분석을 위해 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의류 및 의상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교과과정 및 교과목 해설을 분석하였다. 교과목 분류기준을 선택하기 위해 의류학을 분류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학회나 학술지의 연구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김정호, 1999; 이미숙, 2002; 정찬진 외, 1991)가 많았고, 교과과정을 분류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진행된 교과과정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도규희 외(1994)와 이해영 외(1993)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복식디자인, 의복구성, 의복(피복)과학, 복식사회학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구양숙 외(1999)의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의 제품생산 및 유통과정 흐름에 따라 교과목을 분류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류학 관련 교육과정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의 실무 활용도와 필요한 교육내용을 조사하여 교과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과정 분류기준을 산업 실무의 흐름에 좀 더 적합한 구양숙 외(1999)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58개 학과를 대상으로 하였고 교과목 분류는 과목의 명칭과 교과목 해설, 각 학과에서 제시한 교과목 분류표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몇 개의 교과목은 관련 전공 교수의 검토를 통해 교과목 해설에서 밝히고 있는 전공의 지식 분야와 학습목표를 근거로 분류 기

준을 정해 분석하였다. 예를들어 ‘의류생산공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교과목이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는 소재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교과목 해설 상 ‘직물이 디자인에 따라 의복으로 완성되는 생산과정을 단계별로 연구한다.’는 목적에 근거하여 제품생산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역 및 소속대학의 특성에 따른 교과목 편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전국의 의류 및 의상 관련 학과 58개를 대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크게 4지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학과계열 및 소속대학의 분류는 가장 최근에 연구된 나수임(2008)의 연구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역 및 소속계열, 학과명칭에 따른 교과 과정의 특징은 개설되어 있는 각 교과목의 빈도 및 백분율의 기술통계치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의류학 교과목 분석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실무자들의 실무 활용도 및 교육요구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분석되어야하므로 교과목 분류체계를 패션산업에서의 업무 분류와 유사한 연구내용(구양숙 외, 1999)을 근거로 하였고, <표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과목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1) 전국 대학 교과목 구성

전국 대학의 전체적인 교과목의 구성비율을 살펴본

<표 1> 교과목 분류 및 기준

분류	교과목
산업 및 시장정보	패션마케팅; 패션산업론; 소비자행동; 의상심리; 소비론; 의복행동; 패션정보; 산업전공/유행경향; 인턴십
소재	패션소재론/신소재, 섬유재료/섬유공학/섬유시험/섬유화학; 직조/편조/직물학; 염색 및 가공; 직물디자인, 복식공예염색; 직물CAD; 섬유제품분석; 감성공학
상품기획	의류상품학/패션머천다이징; 포트폴리오; 기획-정보기획, 소재기획, 색채기획, 상품기획, 디자인기획
디자인	디자인원리/패션조형/복식의장학; 디자인스튜디오; 복종별 패션디자인-여성복/남성복/아동복/기능복/니트웨어/특수복; 장신구디자인; 창작/무대/예술의상; 색채; CAD; 일러스트레이션/드로잉/표현기법; 패션컬렉션; 복식미학; 졸업작품
제품생산	서양의복, 한복, 특수의를, 의복설계; 의복구성; 패턴메이킹; 평면재단; 입체재단 및 구성; 기초봉, 봉제; 테일러링; 제작; 패턴CAD; 제품평가와 분석; 봉제과학; 품질관리; 생산공정
판매 및 유통	코디네이션; VMD/디스플레이/매장연출; 패션광고; 사진; 패션쇼; 프리젠테이션; 유통, 판매관리
기초	의류학, 복식학-개론, 연구, 세미나; 복식문화사-한국, 동양, 서양복식사; 민속의상; 현대선
소비과학	인체와 의복; 의복과 환경; 인간공학; 위생; 의류정리 및 관리; 소비과학

자료출처: 구양숙 외. (1999). pp. 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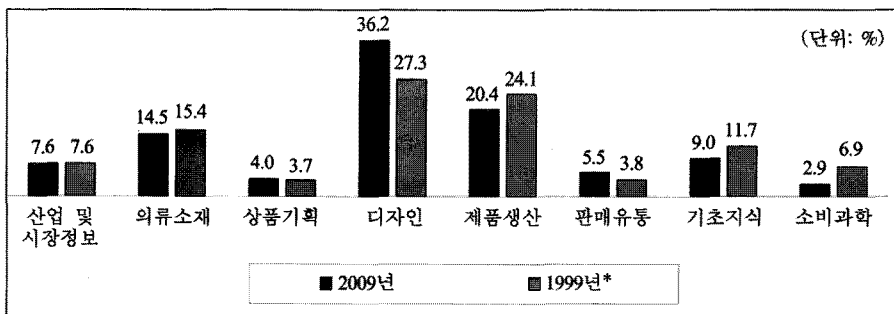
결과, 소비과학 과목의 편성은 평균 3% 미만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반면 디자인 관련 과목의 편성비율은 평균 36.2%로 가장 높았다. 디자인 관련 과목 다음으로 높게 편성되어 있는 과목은 제품생산 관련 과목 및 의류소재 관련 과목으로 각각 20.4%, 14.5%로 나타났다(그림 2).

동일한 교과목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조사한 구양숙 외(1999)의 연구결과와 비교한 경우 1999년 조사와 변화가 거의 없는 교과목 분야는 산업 및 시장정보, 상품기획 등의 분야였으며, 감소한 경우는 의류소재, 제품생산, 기초지식 및 소비과학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과학 분야는 1999년 6.9%의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현재 2.9%의 비율로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품생산 분야는 24.1%에서 현재 20.4%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디자인 관련 교과목은 1999년 27.3%에서 현재 36.2%로 약 9% 정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판매유통 분야도 증가세를 나타내어 1999년 3.8%의 비율이 현재 5.5%로 조사되었다.

1999년과 2009년의 교과목 구성특징을 의류산업의 생산 및 유통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 전체 과정 중 시장조사기획 및 소재 개발 및 선정, 생산의 단계에 비해 디자인과 유통, 판매의 단계의 업무와 관련한 교과목 편성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김순분(2000)의 연구와 같이 디자이너 진출비율이 76.6%로 높은 것과 같은 의류 관련 전공학생들의 진출 분야와 관련이 있는 변화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업 실무에서의 교육활용도 및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조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효과적인 교육내용 편



(*199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평균을 산출)

<그림 2> 전국 의류 관련 학과의 교과목 구성분포

성을 위해서는 교육현황과 학 및 산업 실무자들의 교육 요구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학 지역별 교과목 구성

전국을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으로 나누어 지역별 대학의 교과목 구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각 지역별로 분석에 사용된 학과개수는 수도권 22개, 영남권 18개, 호남권 9개, 충청권 10개 학과였다.

<그림 3>에서 볼수 있듯이 지역에 따라 각 교과목의 편성비율은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몇 개 분야에서 적은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품생산 분야에 있어서 호남권 대학이 전국 평균 20.4%에 비해 25.7%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교과목 내용을 살펴볼 경우 구성 및 CAD과목에 대한 편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교과목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산업 및 시장정보 분야의 교과목 편성이 수도권 지역 학교에서 10.2%로 높게 나타났고 의류소재 및 상품기획 분야의 편성비율은 충청권 소재 대학에서 편성비율이 각각 17.9%와 6.7%로 전국 평균 14.5%와 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교과목 편성비율을 나타낸 디자인 분야 교과목 편성비율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영남권 및 호남권 대학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판매유통 분야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과목 분야로 전체 평균이 5.0%인 것에 비해 수도권과 영남권은 다소 높은 반면 충청 및 호남권 소재 대학에서는 현재

까지 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판매 및 유통 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이 분야에 대한 교과목 편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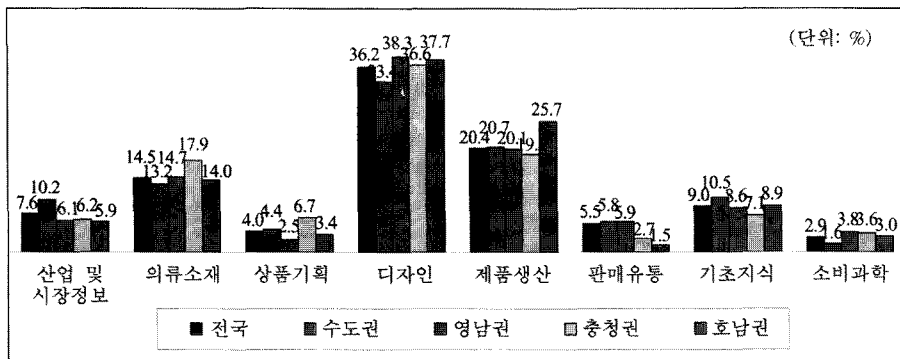
대학의 지역에 따른 교과목 편성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도권의 경우 산업 및 시장정보와 판매유통에 관련된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재와 디자인, 소비과학 분야의 편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남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디자인 분야의 교과목 편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산업 및 시장정보와 상품기획 등의 교과목 편성은 낮게 나타났고 충청권의 경우 소재 및 상품기획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호남권 대학은 제품생산 관련 교과목의 편성은 높은 반면 산업 및 시장정보, 상품기획, 판매유통 교과목을 낮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과목의 편성비율은 유사하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지역의 특성과 산업 기반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교과목 구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학과 소속계열별 교과목 구성

각 대학의 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계열에 따른 교과목 편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선행연구(나수임 외, 2008)를 기준으로 ‘예술계열’, ‘생활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및 ‘기타계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계열별로 소속된 학과의 개수 분포는 앞선 선행연구와 유사하여 각각 예술계열 21개, 생활과학계열 18개, 자연과학계열 11개, 기타계열 8개 학과로 분류되었다.

예술계열에는 예술대학,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등에



<그림 3> 대학 지역별 의류학 교과과정 분포

소속된 학과로 구성되었고 자연과학계열에는 이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소속학과가 분류되었다. 기타계열에는 인문사회 및 문화관광계열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는 계열별 교과목 구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로, 예술계열학과는 전체 평균에 비해 산업 및 시장정보, 의류소재, 소비과학 등의 기획 및 생산관리 분야 교과목 편성이 낮았으며, 반면 상품기획 및 디자인 교과목 편성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의류산업의 생산 및 유통경로와 비교할 경우 예술계열의 학과에서는 상품기획과 디자인, VMD 등 디자이너 교육과 관련한 교과 편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과학계열 학과는 산업 및 시장정보, 의류소재 관련 과목의 편성이 높은 반면 상품기획, 디자인 및 판매유통 관련 과목의 편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의 예술계열 학과와 차이가 있는 결과로 생활과학대학 소속계열의 학과는 디자이너에 비해 기획 분야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생활과학대학의 교과목 편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특별히 제품생산 과목의 교과목 편성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타 문화관광 및 응용산업대학 등에 소속된 학과에서는 산업 및 시장정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소재 관련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계열별 특징을 살펴볼 경우, 예술계열의 경우 디자인 관련 교과목 편성이 높고 의류소재 및 산업 및 시장정보 교과목 편성은 낮았으며 자연과학계열에서 디자인 교과목 편성이 낮고 제품생산 관련 과목의 편성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지만 그밖의 교과목은 계열에 따라 차별화된 편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과명칭별 교과목 구성

<그림 5>는 학과명칭에 따른 교과과정 비교 결과

로, 의류학과군, 패션디자인학과군, 패션산업학과군으로 분류한 선행연구(나수임 외, 2008)의 학과 분류기준은 현재 학과명칭의 다양화와 여러 개념의 혼용으로 인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과명칭은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교과과정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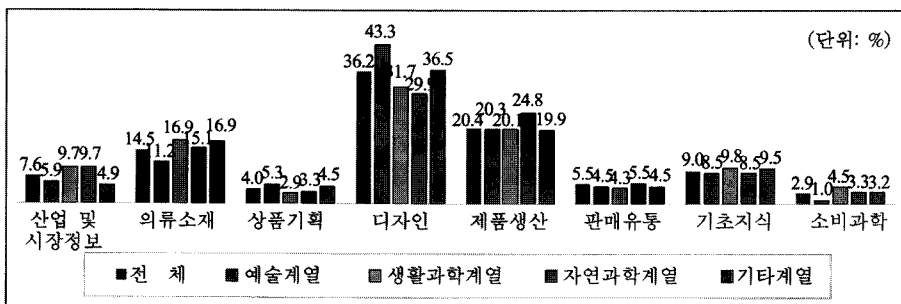
‘디자인’을 학과명칭에 사용한 경우 소속계열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 기타학과와 비교하여 디자인 분야의 교육과정이 높게 분포하였고 상품기획 분야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학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정보 및 의류소재, 소비과학 분야의 교과과정 분포가 높았고 제품생산 및 판매유통 분야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을 사용한 학과의 경우 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의 교과목 구성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디자인 분야에 대한 중점적 교육과 함께 상품기획 및 제품생산 등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는데 많은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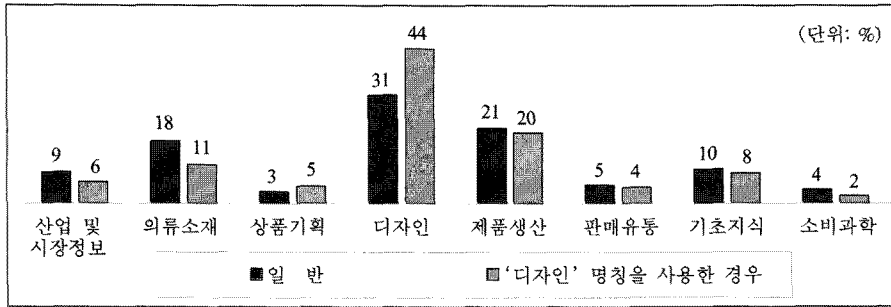
2.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분석

1) 전국 대학의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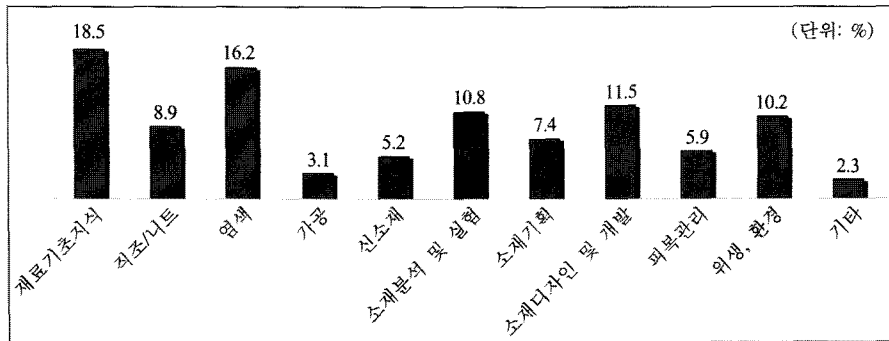
<그림 6>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교과목 분석시 소비과학 분야로 분류된 피복관리 및 환경, 위생학 분야의 과목과 상품기획 중 소재기획 분야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의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 5명을 인터뷰한 결과, 의류소재와 관련한 업무 내용으로 분류한 것에 근거하였다. 또한 의류소재 과목의 세부 내용 분류는 주요 대학교재의 목차 및 분류 시 대표적인 기준으



<그림 4> 소속계열별 의류학 교과과정 분포



<그림 5> 학과명칭에 따른 의류학 교과과정 분포



<그림 6> 전국 대학의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분포

로 사용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분류기준과 현재 대학의 교과목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장 높은 구성을 보이는 교과목은 ‘섬유재료’, ‘피복재료’ 및 ‘의류소재’ 등의 명칭을 쓰는 재료학 관련 기초 분야로 전체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섬유, 실, 옷감의 구성원리에 대한 기초이해를 목표로 하는 과목들이었다. 대학에 따라 섬유에서 옷감의 이론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대학과 섬유 분야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학 등 과목의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이는 교과목은 염색 관련 과목으로 16.2%로 나타났으며, 염색실험, 실습, 공예 및 천연염색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높은 구성을 나타낸 교과목은 소재디자인 및 개발에 관한 과목으로 11.5%, 소재분석 및 실험 관련 과목은 1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공 및 신소재 관련 교과목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다른 분야와 접목되어 실무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소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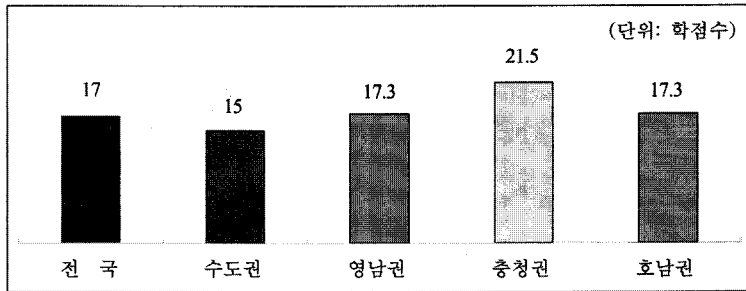
획 분야의 과목도 7.4%의 비율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2) 대학 지역별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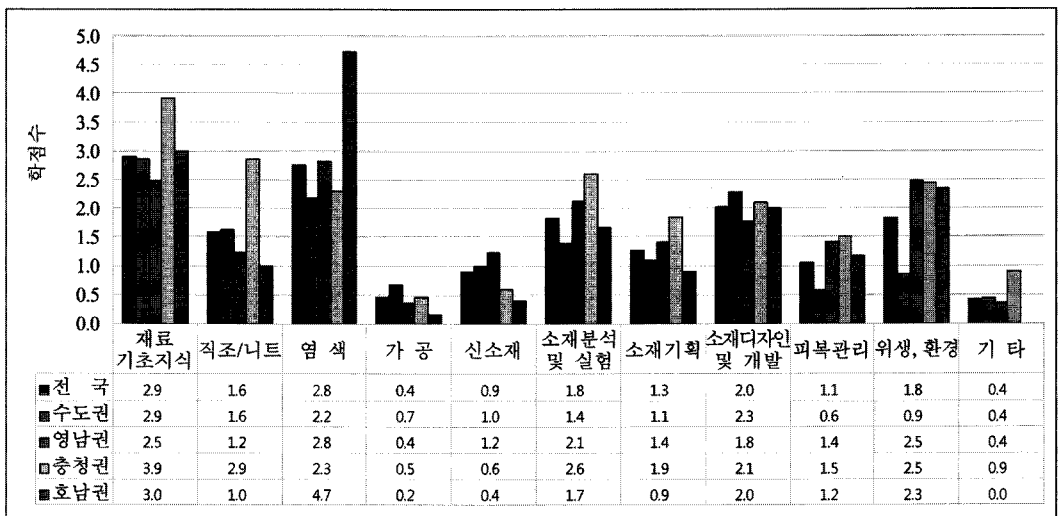
지역별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학점 평균을 지역별로 비교한 <그림 7>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소재 관련 과목 학점은 평균 17학점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충청권 대학이 21.5학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대학의 경우 15학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역별 교과목 구성의 분포비율을 살펴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산업 및 시장정보, 판매유통 분야의 구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과대학 및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 학과를 제외한 결과로, 이와 같은 학과의 경우 대학 및 전공의 특성 상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편성비율이 전체 교과목의 5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8>은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분포특징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구성비율은 재료기초지식이 2.9학점으로 가장 높았고, 염색 분야도 2.8학점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의



<그림 7> 지역별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학점 평균



<그림 8> 지역별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평균 학점수

복재료에 관한 기초지식 분야의 편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권으로 평균 3.9학점이 개설되어 있었고 영남권 지역은 2.5학점으로 비교적 낮은 편성을 보이고 있다. 직조 및 니트와 같은 소재를 직접 제작하는 교과목의 비율은 충청권이 2.9학점으로 평균 1.6학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과목당 평균 학점이 3학점인 것으로 고려하면 대부분 대학에서 한 과목의 직조/니트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염색수업에서 지역적 특징은 호남권 대학 4.7학점으로 2개 과목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 대학은 국가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천연염색 과목의 개설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수도권대학은 전반적으로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평균 학점이 모두 낮은 반면, 소재디자인과 개발과 같은 응용 부분은 2.3학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학과계열별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구성

<그림 9>는 학과의 소속계열에 따라 전체 교과목에 대한 의류소재 교과목의 구성특징을 살펴본 결과로, 예술계열의 경우 재료기초지식 부분과 염색가공의 분포가 높고 특히 다른 계열에 비해 소재디자인 및 개발 부분의 학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소재, 소재분석 및 실험, 소재기획 및 소비과학 분야의 교과목 편성은 모두 1학점 이하로 전체 계열 중 가장 낮은 개설 학점을 보이고 있다.

생활과학계열의 학과는 앞서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재 관련 과목의 편성이 가장 높은 계열로 대부분의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른 계열에 비해 염색 및 가공 분야와 소재분석 및 실험 교과목 편성이 높게 나타났고 직조 및 니트 관련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연과학계열 학과는 대부분의 교과목이 전체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모두 1학점에서 2학점 사이의 낮은 비율로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은 다른 계열에 비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관광 및 인문사회계열 등이 속한 기타계열에서는 다른 계열과 유사한 편성패턴을 보인 반면 위생 및 환경 관련 교과목의 편성이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타계열에 속한 대학의 숫자가 8개 대학으로 적은 반면, 특정 대학에서 이 과목에 대한 편성이 비교적 높은데서 나타난 수치로 기타계열 대학의 전체적인 경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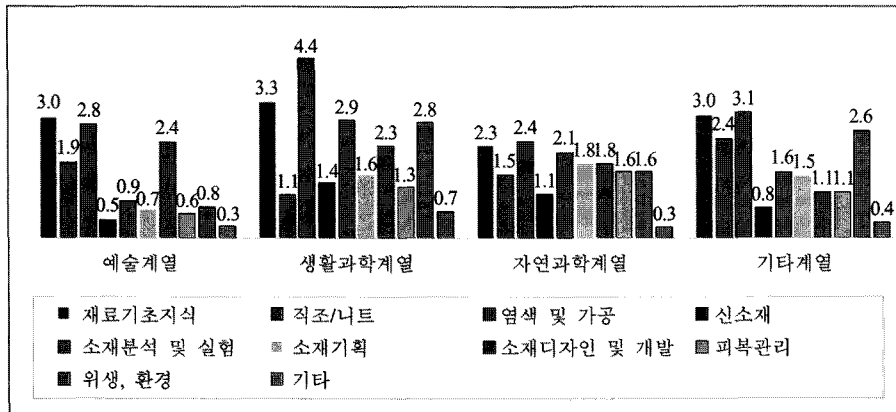
와 그렇지 않은 일반 경우를 비교한 결과로,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편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재료기초 지식 분야, 니트, 염색 및 가공 분야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신소재, 소재분석 및 실험, 소재기획, 피복관리 및 환경 분야 등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디자인’ 명칭을 사용한 학과의 편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재디자인 및 개발 관련 교과목 편성은 디자인 학과에서 높은 편성율을 보였다. 이는 디자인 명칭을 사용한 학과의 경우, 교육목표 및 향후 진로의 대부분이 디자이너 양성에 있는 것으로 소재 관련 과목에서도 소재 기초 과목과 디자인 관련 과목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학과명칭별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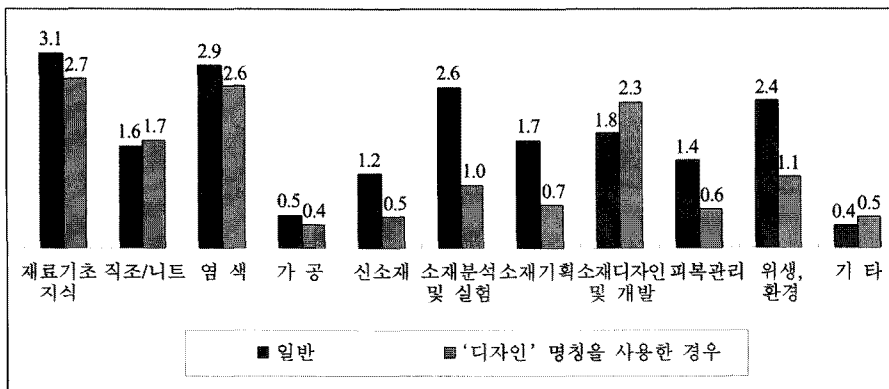
<그림 10>은 학과명칭에서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류소재 관련 교육내용을 산업 현장 필



<그림 9> 소속계열별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평균 학점수



<그림 10> 학과명칭별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평균 학점수

요에 따라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내용을 개발하고자 의류 관련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소재 관련 교육내용 분석함으로써 현재 대학의 의류학 교육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류소재 분야는 현재까지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교과과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산업 실무자들의 교육활용 및 요구도 조사결과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산업 실무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의류학의 전반적 교육내용 및 의류소재 관련 교육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의류학 교과목 구성은 디자인 분야 36.2%, 제품생산 분야 20.4%, 의류소재 분야 14.5% 등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경우 디자인, 판매유통 분야는 구성비율이 확대된 반면, 제품생산, 의류소재, 기초지식, 소비과학 분야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의류학 전공자들의 주된 진로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목 편성 비율은 디자인 교과목의 편성비율이 소속계열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교과목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과목 구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과목은 재료학 관련 기초 분야로 전체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염색과 소재디자인 및 개발 과목으로 나타났다. 소재 관련 교과목의 전체 학점은 평균 17학점으로 분석되었고 지역별로는 충청권 대학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 대학은 가장 낮은 편성을 나타내었다. 학과계열에 따라 의류소재 교과목 편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술계열의 경우 재료학 기초 분야, 염색 및 가공, 소재디자인 분야가 각각 평균 2학점 이상으로 높은 반면, 신소재, 분석 및 실험, 소재기획 등은 1학점 미만으로 대부분의 학과에서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생활과학대학 소속학과는 재료기초학 분야보다 염색 및 가공 관련 과목 편성이 높았고, 이밖에도 소재분석 및 실험, 위생 및 환경학 분야가 대부분 개설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의류학 관련 학과의 전체적인 교과목의 편성은 지역과 계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적 특성과 산업 기반에 맞는 교과목 편성의 차별화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산업과 계열 및 학과의 특성에 따른 교육내용의 제공과 교육

내용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재 관련 교과목은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역과 계열에 따라 비교적 차별화된 구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향후 이런 편성의 특징이 지역산업 기반과 계열, 학과의 교육목표와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에 맞는 교과목 편성과 교육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교육내용의 현황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각 교과목의 실무 활용도와 교육 필요도를 조사하는 후속연구단계와 함께 분석되어 의류학 분야의 대학교육 교과목 구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양숙, 김정원, 박경애, 박광희, 추태귀. (1999). 4년제 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 교과과정 비교 분석: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홍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9-32.
- 김순분. (2000).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對)한 인식(認識)과 선호(選好). *패션비즈니스*, 4(4), 17-28.
- 김은애, 김민자, 이연순, 정혜원, 최혜선, 양숙희, 홍병숙. (2004). *한국 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의류학)*. 서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 김정호. (1999). 90년대(1990~1998)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 -한국의류학회지와 한국복식학회지를 중심으로-. *복식*, 46, 133-142.
- 김혜영. (2000). 의상 및 의류학과 개설과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대한 조사·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50(2), 81-95.
- 김효은. (1999).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의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복식*, 46, 89-107.
- 나수임, 권혜숙, 이정순. (2008). 패션 관련 학과의 전공교과과정 현황분석. *패션비즈니스*, 12(5), 54-66.
- 남윤자. (1999). 생활과학의 새로운 도약.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0주년 및 생활과학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 초록집*, 33-35.
- 도규희, 최경, 이정옥, 조차, 최경선. (1994). 복식산업발전을 위한 패션 전문 교육에 관한 연구. *복식*, 23, 225-248.
- 이미숙. (2002). 한국복식학회지 '복식'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 분석-창간호(1977)부터 51권 8호(2001)까지. *복식*, 52(4), 97-109.
- 이유리, 이미영. (2007). 패션마케팅 분야의 4년제 대학교육 과정과 「복식」지 연구동향 비교. *복식*, 57(5), 123-139.
- 이혜영, 이진희. (1991). 우리나라 의류 관련 학과 대학교육 과정에 관한 조사연구-의복구성설계를 중심으로-. *대전 대학 논문집*, 10(1), 197-204.

이해영, 이진희, 정기영. (1993). 의류 관련 학과 대학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자연과학*, 4(1), 117-132.
정찬진, 박신정, 황선진. (1991).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제조명: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1), 28-37.
최선형. (1994). 의류직물학과의 발전 방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4(1), 103-110.